

<보충 자료>

★ ‘까마귀 눈비 맞아...’ 가 발표된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1455년 수양 대군은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왕이 된다. 이 사람이 곧 세조이다. 이때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동조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박팽년은 후자에 속했던 인물이다.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성삼문 등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친다.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 혹독한 고문에 시달린다. 박팽년은 세조의 회유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맞서다가 결국 옥에서 죽는다. (자료 출처: 교과서-천재교육)

★ 조금 더 알고 싶나요?

계유정난: 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문종이 단명하고 어린 단종이 왕이 되었다. 문종은 유언으로 황보인·김종서 등에게 단종을 보필하도록 명하였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은 황보인·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동생인 안평대군을 모반의 죄명을 씌워 사사했다. 수양대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자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다. 1455년 단종은 수양대군 추대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스스로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물려주었다. 1456년 성삼문·박팽년·하위지 등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모두 처형된 뒤, 1457년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그해 10월 죽음을 당했다.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김종서·황보인 등이 반역을 모의한 것을 평정했다는 명목으로 정난이라는 말을 붙였으나, 실상은 수양대군이 왕이 되려는 야심에서 이들을 제거한 정변이었다. (자료 출처: 다음백과)

★ 아직도 지식에 목마른, 좀 맛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시대적 배경이 같은 시조>

작가	원문	현대어 해석
성삼문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얏다가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 흠제 독야청청 (獨也靑靑) 흐리라.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까 하니 봉래산 제일봉(제일 높은 봉우리)에 가지 늘어진 <u>높은 소나무가 되어서</u> 흰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나홀로 푸르리라.
성삼문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 흐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菜薺)도 흐는것가 비록에 푸새엿 것인들 그 님 따헤 낫다니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닷하노라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는 왜 캐어 먹었던 말인가 비록 (고사리가) 나물일 뿐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땅 에 난 것인가
왕방언	천만 리 머나먼 길 고운님 여의옵고 내 마음 돌 더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눗다.	천만 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이별하고 내 마음 돌 데 없어 냇가에 앉아 있으니 저 물도 내 마음속 같아서, 울면서 밤길 가는구나
이개	방안에 헛는 촛불 놀과 이별 흐엿관더 것츠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로논고 더 촛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줄 모로도다.	방안에 켜 놓은 촛불은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겉으로 눈물 흘리면서 속 타는 줄 모르는고 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유응부	간밤에 부던 바람에 눈서리 티단 말가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허물며 못다 핀 꽃이야 닐러 무슴 흐리요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친단 말인가 낙락장송(위에 있죠?)이 다 기울어 간다는 말인가 (높은 낙락장송도 기울어가는데) 하물며 못다 핀 (어 린) 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